

‘세계 1000대 대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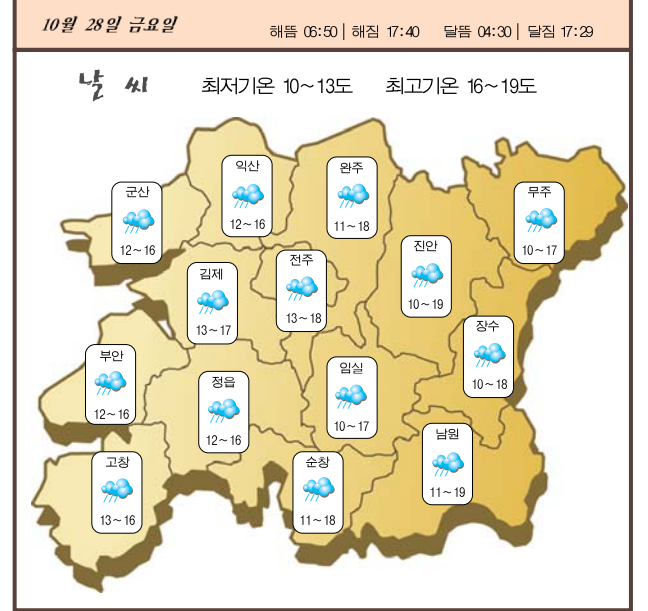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국내 종합대학 14위

전북대학교가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0대 대학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14위에 올랐다. 해당 평가는 세계 65개 나라, 10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계적인 연구 실적과 평판, 지역적 연구와 평판, 지역적 연구 실적, 출판, 출판물 세계적 공동연구, 가장

공학과 화학·재료공학 분야 국내 거점국립대 중 1위 차지

많은 인용된 1%의 논문의 수와 출판물의 비율 등 총 12가지 항목을 차등 배점해 그 점수의 총합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세부 분야별로 공학(Engineering)과 재료공학(Materials Science)이 국내 종합대학 6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화학(Chemistry)이 7위, 생물학 및 생화학(Biology and Biochemistry)이 9위, 약리학(약물학) 및 독성학(Pharmacology and Toxicology)이 8위에 올랐다. 특히 공학과 화학,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거점국립대 중 1위에

차지했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 대학의 공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경쟁력이 국립대 최고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러한 장점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학문 분야를 더욱 가꾸고 다듬어 전북대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동네복지’ 개선방안 마련 완성도 높인다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열고 객관적 점검

전주시가 마을과 주민 주도의 복지 체계인 동네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27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민선6기 중점 복지시책으로 추진 중인 동네복지 시범사업 추진 1년을 맞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최옥채)은 지난 8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실무부서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

2023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26일(현지시각) 미국 휴스턴을 방문한 송하진도지사(사)와 스키우트총보대사 및 유치단이 중남미 3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스카우트 인터아메리카 총회에서 각 나라 대표단들에게 2023세계 잼버리 장소로 새만금이 최적지임을 홍보하며 표심 공략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동네복지 6개 시범동(평화동, 서산동, 삼전2동, 인후3동, 송전2동, 동산동)과 비시범동 4개 동(효자3동, 중앙동, 우애동, 금암2동) 등 총 10개 지역을 선정해 8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네환경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소요 △동네복지의 의견 및 자원 △생활민족 및 심리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네복지 사업에 대한 인지는 시범동 주민들은 53%가 동네복지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비시범동의 경우 응답자의 25.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세부사업별로는 취약계층 방문상담 복지지원(51.8%)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손꼽혔으며, 독거노인 및 임산부 방문 및 상담(47.7%), 동네차원의 복거노인 서비스 및 모금사업(46.8%) 순으로 조사됐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길지 않은 용역기간에도 어려운 과업을 진행해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전주시민의 동네복지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공식 포스터 공개

한국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포스터가 27일 공개됐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는 내년 5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홍보 포스터 두 종류를 공개했다. 대회 개막 D-200일을 앞두고 제작된 포스터는 대회 오피셜 룩과 같은 짙은 남색을 배경으로 제작된 버전과 오피셜 룩의 문양을 활용한 흰색 배경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오피셜 룩 색상의 포스터는 상단에 솟구치는 듯한 축구공과 더불어 선수와 환호하는 팬들의 실루엣을 담았다. 축구가 상징하는 역동성과 함께 승리를 갈망하는 선수와 팬들의 열광을 나타내고 있다. 흰색 배경의 포스



터는 단정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오피셜 룩 무늬와 대회 타이틀이 삽입되어 대한민국 고유의 느낌과 깔끔함을 살렸다. /김영재기자

전북도·교육청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체험학습 사전접수

전북지역 초·중·고생들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체험을 접할 수 있게 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6월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국제경기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대회 및 태권도원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태권도에 관심이 많고 각종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회운영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태권도원에 대한 체험 학습을 희망하는 학교는 2017년도 학사일정에 반영하고 대회조직위원회 및 태권도원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지혜로운 만남”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녹색에너지 강국의 희망!
“서남해 해상풍력”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주)
Korea Offshore Wind Power